양 병 국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

국민의 건강수준 향상을 위한 만성질환 관리

OECD 보고[1]에 따르면 세계인구의 60%가 만성질환으로 사망에 이르고 있다 한다. 이와 같이 만성질환은 전 세계적으로 장애와 사망의 주된 요인이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 역시 만성질환으로 인한 국민의 건강수준과 사회경제적 부담이 상당히 우려스럽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동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0세 이상 성인 중 54.3%가 만성질환을 보유하고 있으며, 만성질환자는 평균적으로 2.5개의 복합질환을 보유하고 있다. 만성질환의 심각성은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더욱 가중되는데 50대에는 68.7%, 60대에서는 83.7%, 그리고 70대 이상에서는 91.3%가 만성질환을 보유하고 있는 실정이다.

체계적인 만성질환 관리의 부재는 삶의 질 악화 뿐만 아니라 높은 사망률과 의료비 부담 가중으로 이어진다. 만성질환 중 대표적인 당뇨병 사망률은 우리나라가 OECD 평균에 비해 약 2~3배 정도 높은 인구 10만 명당 30여명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고혈압 및 당뇨병으로 인한 진료비는 건강보험 재정의 1, 2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제시되고 있다. 구체적인 수치[2]를 보면 고혈압으로 인한 총진료비는 2008년에 2조 998억원으로 2002년 대비 2.5배 증가하였으며, 당뇨병으로 인한 총진료비는 동 기간에 2.2배 증가한 1조 1,276억원에 달하였다.

정부도 이러한 만성질환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데,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를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는 심뇌혈관질환종합대책이 중요한 정책 중 하나이다. 심뇌혈관질환종합대책은 5년 단위로 추진하는 정책으로

1) OECD(2008). *The Prevention of Lifestyle-Related Chronic Diseases: an Economic Framework.*
2) 국민건강보험공단(2009). **만성질환 단골의사제 시범사업 모형개발.**

2006년에서 2010년까지 제1기 심뇌혈관질환종합대책이, 2011년에서 2015년에는 제2기 심뇌혈관질환종합대책이 진행될 예정이다.

제1기 대책에서는 국민인식 제고 및 건강생활 실천율 향상, 고위험군 대상 질병위험요인 예방관리, 뇌졸중, 심근경색 등 중점 질병관리와 만성질환관리 인프라 구축에 목표를 두고 시행하였다. 제1기 종합대책에서는 심뇌혈관 예방관리수칙을 제정하고 홍보활동을 수행하였으며,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을 도입하는 등 국가검진제도를 개편하였다. 지방에 권역 심뇌혈관질환센터를 지정하여 필수 시설, 장비를 갖추고 심혈관센터, 뇌혈관센터, 심뇌재활센터, 예방관리센터를 설치하여 환자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까지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2008년부터 2010년까지 매년 3개씩 9개소를 설치 운영 중이며 올해에는 인천, 경기 지역에 추가 선정 예정이다. 한편, 학 · 협회와 공동으로 개발한 대국민용 '예방관리수칙'과 '자주하는 질문', 보건담당자용 '역학과 관리' 등 가이드라인도 개발하여 보급하고 있다.

2기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으로는 민관협력을 통해 홍보 컨텐츠를 개발하여 지역사회의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하고, 보건소 등 공중보건 인력교육 추진(1차 예방), 고혈압 · 당뇨병 등 선행질환 지속치료 지원하고 이를 위한 지침 개발(2차 예방), 심정지, 초기 뇌졸중 등 응급상황 대응 강화를 위해 대국민 뇌졸중 대응지침을 보급하고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를 통해 급성기 질환 진료역량을 제고(3차 예방)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에 따르면 뇌졸중의 사망률은 2009년에 인구 10만명당 52.0명에서 2020년에는 45.8명으로 감소시키고, 고혈압 조절률은 2008년의 42.4%에서 2020년에는 70%로, 그리고 당뇨병 조절률은 27.1%에서 60%로 향상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심근경색, 뇌졸중 등 중증질환의 선행질환 관리가 중요할 것이다.

WHO에서는 만성질환으로 인한 조기사망(70세 이하 사망)을 2025년까지 25% 줄이는 것으로 목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10년간 뇌혈관질환으로 인한 사망자는 감소하여 심뇌혈관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은 다소 감소하고 있으나 그 외 만성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므로 만성질환의 주요 위험요인들을 관리하여 사망률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보건복지부는 제2기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P2020)을 통해 음주, 흡연등과 같은 위험요인들을 2020년까지 도달할 목표를 수립(예: 남성현재흡연율 2008년 47.7%에서 2020년 29%)하고 추진하고 있다.

심뇌혈관질환을 포함한 만성질환 예방과 관리는 보건의료기관, 관련 전문가 단체 등 보건분야 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이를 위해 사회제분야간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 보건복지부는 각급 보건의료 당국,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학계와 지역사회, 주민 등 다부문간의 참여와 협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제도를 개발하여 우리 국민의 주요 건강문제인 만성질환의 적정한 관리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다.